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월 28일
제1985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마르 1,25-27)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빌렘 판 데르 호우웬

연중 제4주일 (나해)

제 1 독서 신명 18,15-20 |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화답송 시편 95(94)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서 1코린 7,32-35 | 처녀는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복음 마르 1,21-28 |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카파르나움에서,

²¹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²²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²³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²⁴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²⁵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²⁶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²⁷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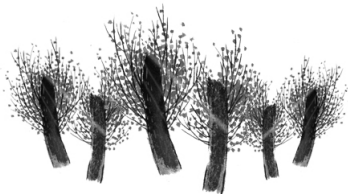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²⁸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마르 12:7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율법 학자들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율법 조항에 근거하여, “악령에 들렸으니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 짓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 짓는 것, 이것이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 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서 가지고 계신 권위는, 당신 말씀이 악의 지배를 받는 자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던 악을 떠나가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온 나 또한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복음 말씀 안에는 악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하여 줄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는 복음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

복음과 성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마르 1, 21-28)

네덜란드 동판화가 빌렘 판 데르 호우웬(Willem van der Gouwen, 1640-1720)이 참여하여 1728년에 동판화 연작으로 제작된 그림 성경(Figures de la Bible)에 그려진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행위가 회당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십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고, 더러운 영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 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빌렘 판 데르 호우웬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군중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있고 수염이 없는 청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더러운 영이 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일까요? 그 시선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는지가 갈립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성사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소문을 곳곳으로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 시선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주님 봉헌 축일

교회는 성탄 다음 사십 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헌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여기에 초 봉헌 행렬이 덧붙여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한국 교회는 'Vita Consecrata'를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 생활의 날' 명칭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다(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9년 12월 2일 회의).

1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본당 달력 배부

• 2024년 본당 달력을 받지 못한 가정은 사무실 또는 회장단 회의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일(1월 28일) 모임 안내

- 루카회 월례 회의 : 오전 11:30 (B-2)
- KoC 월례 회의 : 오전 11:30 (B-3)
- 베드로회 첫 총회 : 오후 6시 (친교실)

4 2024년 성경학교 동계 워크숍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전 신자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 - 오후 3시(점심 제공)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5 병자 영성체

- 일시 : 2월 9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6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2월 3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미사)
- 파티마 신심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7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2월 4일(일) 오전 11:30 (B-1,2)

8 2024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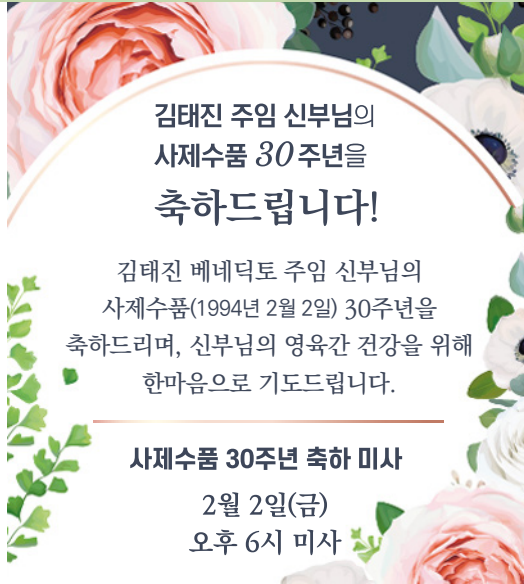
- 일시 : 2월 4일(일) (A-1,2)
- 대상 : 1학년 신입생 등록자 전원

9 유아세례

- 일시 : 2월 10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설날 합동 위령미사는 2월 11일(주일)에 봉헌됩니다.
-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매 미사 시간(교중미사 포함)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 10시 미사 중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도와 제례가 있습니다. (생미사 지향은 불가합니다.)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베네딕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1994년 2월 2일)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제수품 30주년 축하 미사
2월 2일(금)
오후 6시 미사

11 2024년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25일(일) 10시 미사 중
- 세계 결혼기념일을 맞아 결혼 25, 30, 40, 50,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 신청 마감 : 1월 28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12 2024년 견진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일정 : 3월 6일(수) 오후 7시 - 오후 8시
- 등록 기간 : 2월 18일(일)까지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임형준 교감 (703) 624-8196
hyungjoonlim71@gmail.com

13 제6기 성 마리아 어머니 학교

- 일시 : 3월 2일(토) - 3일(일), 1박 2일
- 수강료 : 일인당 \$180.00
- 장소 : The Northern Virginia 4-H Education Center
- 참가 대상 : 어머니(나이 제한 없음), 선착순 40명
- 접수 기간 : 1월 21일(일) - 2월 4일(일)
(친교실, 성당 입구)
- 문의 : (703) 470-1220 / (703) 864-1236

공지

**주임신부님 사제수품 30주년
기도 봉헌 안내**

2월 2일(금)은 김태진(베네딕도) 주임신부님의 사제수품 30주년입니다.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대에 비치된 기도 봉헌은 1월 28일(일)까지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영적 예물 |
미사 참례/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나눔과 희생, 화살기도, 십자가의 길, 사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1/28 이번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02/04 다음 주	비엔나 1구역

성당 청소

01/28 이번 주	페어팩스 2-1, 2-2구역
02/04 다음 주	페어팩스 3-1,2 & 3,4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월 21일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봉헌금	\$ 7,320.00
교무금	\$ 6,120.00
교무금(신용카드)	\$ 850.00
감사 헌금	\$ 410.00
온라인 봉헌	\$ 2,598.00
합계	\$ 21,75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2월 1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2월 2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2월 4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9권] '예수상의 형성과 그 배경'

|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예법의 필요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